

T V

TV 24일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Table with 4 columns: KBS1, KBS2, MBC, KBC/SBS.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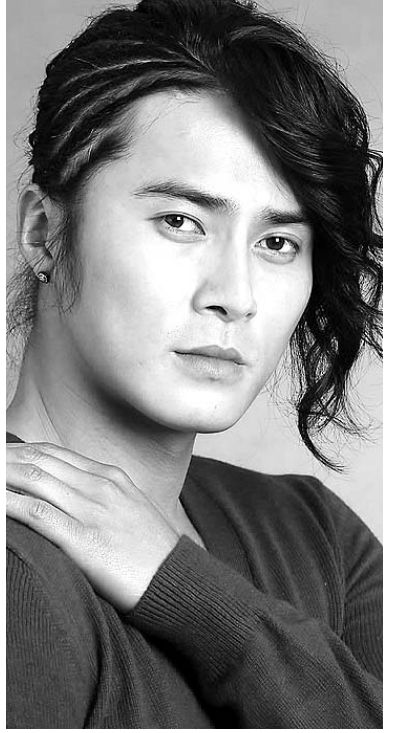
“죽을 고비도 넘기고 ‘폼나게’ 그려져 뿌듯”

조동혁, 케이블 OCN 액션 사극 ‘야차’ 백록역

케이블 채널 OCN의 액션 사극 ‘야차’는 한국판 ‘스파르타쿠스’ 혹은 ‘300’으로 불린다. 선 굵은 남성 캐릭터와 그래픽 노블을 연상케 하는 감각적인 화면, 화려한 액션 장면 덕분에, 30억원을 투입한 대작인 ‘야차’는 첫회에서 평균시청률 2.3%(AGB닐스 미디어리서치), 분당 최고 시청률 3.5%을 기록하며 화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.

조동혁은 최근 “온몸이 부상 투성이였지만 (자신의 캐릭터인) 백록이 ‘폼나게’ 그려진 것을 보니 뿌듯하다”고 말했다. 사전제작방식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의 촬영을 위해 조동혁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 했다. 첫 촬영에서는 계곡에 빠져 익사할 위기에 처했고 출발을 보이고 있다.

“한동안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나 정신이나 나태해지는 것 같더군요. 그래서 복귀하면서 마음 가짐을 달리했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자고 생각해서 연극이나 예능 프로그램



캠에 출연한 거예요. 생전 안 해보던 분야인데 제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관객이나 시청자들의 호응을 느끼면서 연기하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.”

제4회 광주바둑협회장배 바둑기기의 결과. 최강부단체인 준결승 6보(98~119)의 바둑판과 기사 오규철 9단의 인터뷰. 기사 오규철 9단은 “이번 바둑은 흑이 ‘가’로 내려서는 수가 선수라는 것도 백의 고민이다. 심재욱 6단이 고민 끝에 백 110으로 때려낸 것은 여자하면 우변은 버리겠다는 것이다. 그만큼 사매가 심각하다. 흑 113은 ‘참고도’처럼 흑 1로 공격하고 싶은 곳. 9까지만 탈출이 불가능하다. 119까지 백이 난감한 장면이다.”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. 12월 24일(음 11월 19일 戊申). 운세 정보: 36년생 건강검진을 받아 보라, 48년생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다, 60년생 구설수는 항상 삼중하니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.

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. Lists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.

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: 1. It was tough (English), 2. 私も行きたいです (Japanese), 3. 外八字 팔자걸음 (Chinese), 4. 天地開闢 (천지개벽) (Chinese). Each column includes a lesson and a short story.